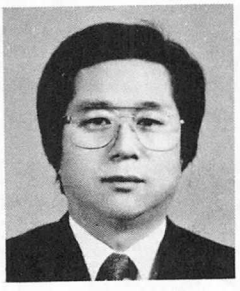


황 진 수
(한성대 교수, 정치학 박사)

정치학 박사가 본

돼지 이야기

인간의 역사는 동물의 역사, 특히 가축의 역사와 함께 한다. 돼지는 인간이 제일 먼저 기르기 시작한 가축으로 기록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동물뼈가 발견되었을 때 그중에서도 돼지뼈가 제일 많았다는 사실은 돼지를 선사이전 시대에도 키웠다는 증거가 되며, 고대인이 살던 무덤을 발굴했을 때 그들의 토속신앙에 의해 각종 패물과 문무신하와 가축의 토용(土俑)을 부장(副葬) 하였는데, 그중에도 돼지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돼지가 옛날부터 서민은 물론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이르기까지 애용되었던 동물이요, 가축이었다.

돼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은 중국 漢 나라로부터 樂浪國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漢나라에서는 中國 최고의 神인 4神 밑에 12支神이 있고, 돼지를 포함한 12支神이 결국 干支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부(富)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돼지의 다산(多産)은 곧 다복(多福)으로 자손의 번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이와 함께 우애를 기초로 한 측면에서

도 돼지가 활용되기도 했다.

또 돼지는 악귀를 쫓는 傳令 또는 사도(使徒)로 믿었고, 옛부터 귀한 자식에게 돼지라는 칭호를 붙여서 부귀를 기원하기도 했다.

돼지는 인간에게 해를 주는 동물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동물이다. 일반적으로 돼지를 몸집이 비대하고 식욕이 왕성하고 동작이 느리기 때문에 미련하고 탐욕스럽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돼지의 탐욕스러운 차원이 아니라, 봉사와 자기희생의 차원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布施)의 극치이다.

돼지의 살코기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기름은 식용유나 화장품 원료로, 피는 의약품 원료로, 뼈는 공예품 자료로, 껍질은 가죽제품으로, 털은 솔이나 붓으로, 또 분뇨는 훌륭한 비료로 쓰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돼지를 업신여긴다. 돼지는 지저분하고 불품없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지저분한 것은 돼지를 기르면서 사람들이 청소를 게을리한 탓이고, 볼품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다.

동물 중 돼지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생리조직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생체실험을 할 때에는 돼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알려진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에 대하여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심한 부분이 한약과 돼지고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방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요리의 중심재료로 삼고 있으며, 중국 唐나라의 명의(名醫) 손사막이 쓴 「千金食治」에 보아도 돼지고기가 신기(腎氣)와 기력을 함께 북돋아 주고, 사람 몸에 필요한 진액(津液)을 생산케 하며 피부를 윤택케 한다고 쓰여 있다.

조선조 말에 나왔던 四象醫學의 저자인 이제마 선생도 「쇠고기가 몸에 맞는 사람은 태음인(太陰人)뿐이며, 태음인은 1만명중 약 3천명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니, 나머지 7천명은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몸에 더 이롭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희대 한의대의 金賢濟 박사도 열병에 돼지고기를 금하는 것은 돼지고기가 기름기 많은 음식이기 때문에 「풍을 유발한다」는 소위 동풍설(動風說)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 한의사들의 주장일뿐, 일반적인 통설은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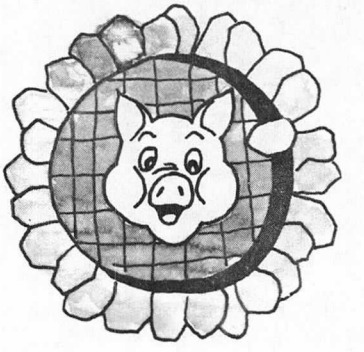
돼지에 관한 설화도 많다. 그것은 돼지가 인간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 온 가축이기 때문이다. 또 돼지는 인간 생활의 미래를 점쳐 주고 吉卜을 점지해 주는 하나의 영물(靈物)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山上王때 하루는 山上王이 기르는 돼지가 우리를 박차고 달아났다. 王은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를 잡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돼지는 잽싸게 도망하여 어느덧 酒桶村이라는 마을까지 이르렀다. 이때 달아난 돼지를 이 마을의 아릿다운 20세의 처녀가 잡아 주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王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돼지 설화는 두가지가 있는데, 신라의 炤知王이 돼지 두 마리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池中에서 노인이 나와 奉書하기에 열어 보고 宮主가 간통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부(姦夫)를 잡아 의법처리하는 소위 射琴匣의 고사가 있다.

또 하나는 崔致遠의 어머니가 금돼지에 납치되어 경주 최씨의 시조인 崔致遠을 낳았다는 說話도 있다.

고구려의 유리王은 그 당시에는 돼지를 찾아 전국을 헤매다가 國內尉那라는 지역에 당도하여 돼지를 사로잡았는데,



그곳의 山川이 수려하고 오곡이 풍성하게 자라는 吉地이므로 首都를 그곳으로 천도하고 있으니, 돼지가 고구려의 수도를 점지해 준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유사한 것으로는 고려에도 있다. 왕건 태조는 龍女를 아내로 삼았는데 그 장인으로부터 七寶 대신 돼지를 받아 길렀다. 하루는 돼지가 뛰쳐나가 그 돼지를 따라갔더니,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이르러 멈추기에 자세히 살펴보니 기막힌 吉地여서 여기에 집을 지었다. 명당에 집을 지은 왕건은 후에 대권을 잡아 왕위에 등극하니 그야말로 돼지가 吉地를 卜하였기 때문에 행운을 얻게 된 결과를 만들었고 그뒤 그 지역을 國都로 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유리왕과 왕건이 다같이 定都를 하는데 돼지가 영험으로 점지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돼지에게는 4가지의 德을 갖추고 있다.

첫째, 仁으로 돼지는 살아서

> 사람들은 모두 돼지꿈을 좋아하고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믿고 있으니 돼지는 정녕 福과 財와 吉을 점지해 주는 동물임에 틀림없다.

는 자기 주인을 위해 새끼를 낳아주고 새끼는 곧 재산의 증식이다. 죽어서는 고기를 비롯해 모든 것이 버리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인간을 위해 희생을 한다. 殺身成仁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둘째는 義로서 돼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료를 먹이면 먹은 것만큼 살을 찌는 의리있는 동물이다. 인간이 갖은 계략을 써가며 속이려드는 것을 생각하면 돼지만큼 의리있고 고지식한 가축도 드물 것이다.

세째는 禮이다. 돼지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반드시 아는 체 한다. 몸을 살찌우기 위해 곧히 낮잠을 자는 경우는 예외지만, 거의 꿀꿀꿀 하면서 아는 체 하고 인사를 하니 어찌 예절바른 동물이 아닌가.

네째는 信이다. 돼지는 신의가 있다. 주인이 집을 지어주고 밥먹여 주면 이를 배신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없다. 오로지 신의를 끝까지 지켜가면서 충성을 바친다. 요즘 각종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노사분규처럼 구호도 외치지 않고 특별한 요구조건도 없다. 돼지처럼 신의가 있는 동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고사를 지낼 때 흔히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모든 짐승의 죽은 모습이 험악한 상인데 비해 돼지는 웃는 모습이다. 웃는 돼지상은 복을 기원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또 巫俗에서는 돼지머리를 올려놓는 것은 조선왕조를 이룩한 이성계를 의미한다고도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힌두교에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정반대이다. 힌두교에서의 경우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이고, 이슬람교 에서는 마호메트의 계시에 의해 돼지는 더럽고, 병균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사막지대에서 생활하다 보니, 양(羊)은 몰고 다니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돼지는 일정한 집을 지어줘야 하고,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유목민족으로서는 적합한 가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규율을 제정해 놓았을 것이라는 추측과, 또 사막지대에서 돼지고기는 체질에 그렇게 잘 맞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리를 가능케 한다.

돼지는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동물의 대명사이다.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돼지들의 소풍얘기는 다른 돼지는 다 세면서도 자기는 셀 줄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나라 교과서에 그대로 옮겨서 실은 것인데, 아마도 서양에서의 돼지 이미지는 동양보다 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독일에서 제일 고약한 욕이 두 슈바인(du Schwein) 인데 이것은 「돼지같은 놈」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돼지는 12支에 나오는 짐승으로 옛부터 샤머니즘의 대상이었으나 이조때부터 갑자기 퇴조된 것은 청빈을 첫째 德目으로 삼은 유교의 영향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돼지는 富를 상징하고, 富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돼지꿈을 좋아하고 그 꿈을 꾸면 재수가 있다고 믿고 있으니, 돼지는 정녕 우리에게 福과 財와 吉을 점지해 주는 동물임에 틀림없다. *